

기부은행, 나눈만큼 노후 복지 누리요

■ 김모(62)·최모(여·59)씨 부부는 최근 신문을 보고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은퇴 후 인문학 강좌를 들으며 여가를 보내온 부부는 봉사한 시간만큼 나누어 돌려받을 수 있는 '기부은행' 제도를 보고 함께 봉사활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김씨는 특히 부부가 2인 1조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다. 김씨는 아내와 함께 오전에는 인문학 강좌를 듣고, 오후에는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보살필 계획이다.

돌봄 봉사 1시간당 1점 적립...65세 이후 서비스 이용

광주광산구·고흥군복지협의회 봉사자·독거노인 연계

젊어서 실천한 나눔만큼 나이가 들어 해를 돌려받을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현열증서'처럼 봉사활동 시간을 적립한 뒤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하거나 필요에 따라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15일 광주·광산구사회복지협의회와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참여할 봉사자 모집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발굴하

고 있다.

광산구사회복지협의회와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는 올해 각각 800~1000여명의 봉사자를 모집해 독거노인 등 400~500여 가정과 연계할 예정이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돌봄 봉사활동 시간을 점수화해 포인트로 축적·관리하고, 이 포인트를 가족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하거나 65세 이후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돌봄 봉사 1시간당 1포인트가 적립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대구와 청

돌봄 기부은행 사회공헌활동 흐름



※40세 이전 적립 포인트는 10년 경과시 소멸·포인트 기부 가능

주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돌봄 봉사자 995명을 발굴했다.

돌봄 봉사자들이 지난해 6개월 동안 적립한 포인트는 모두 5728점으로, 이들은 5728시간만큼을 기부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광산구사회복지협의회와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 등 광주·전남 2곳을 포함해 전국 17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했다.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돌봄 봉사자로 참여가 가능하며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으면 돌봄 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다.

돌봄 봉사자들은 광산구사회복지협의회 등 사업수행기관이 선정한 노인들의 가정을 정기적 방문해 여가활동 보조,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주택 안전관리, 이·미용 등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봉사자

가 갖고 있는 재능에 따라 봉사활동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2인1조로 활동하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도 있다.

봉사자들은 1일 최대 4포인트(4시간)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사용은 연간 200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나눔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적립한 포인트의 20%는 의무적으로 기부해야 한다.

광산구사회복지협의회 고은애 사회복지사는 "봉사자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을 준비 중에 있다"며 "현열증서처럼 개인이 나눔을 실천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고, 또 필요한 곳에 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부은행 문화가 정착되면 사회적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062-951-6647(광산구사회복지협의회), 061-832-2500(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인권마을, 어디로 가야하는가?



지난해 열린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광주인권사무소 제공)

광주인권회의의 31일 토론회

인권마을 현실화 방안 논의

광주인권회의와 광주인권마을회의는 오는 31일 오후 4시 동구 금남로 5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내 광주인권교육센터에서 '제38차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날 주제는 '인권마을, 어디로 가야하는가?'로, 광주에서 지난 2013년부터 '인권문화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있는 인권마을 만들기 운동'에 대해 함께 토론할 계획이다.

또 일곡마을 박필순씨, 수완마을 손미애씨, 문산마을 박태규씨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현재 광주에서는 광주시의 제안으로 8개 마을이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올해도 4개 마을이 새롭게 참여할 예정이다. 인권마을은 인권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광주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고, 여타의 마을 만들기 사업과는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참여하고 있는 마을들 역시 정확한 본보기가 없는 인권마을의 모습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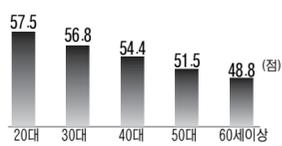
하지만 그동안 인권마을이란 무엇인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지향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의미 있는 흐름을 만들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논의된 적은 없는 상황이다.

광주인권회의의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는 인권마을에 참여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직접 논의거리를 제안하고 참가자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인권마을의 현재와 전망, 한계와 가능성, 고민과 문제의식 등에 대해 인권마을 참여자들, 유관기관, 관심 있는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지혜를 모으면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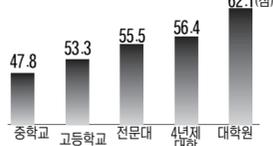
한편,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은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시청 인권평화협력관,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광주인권회의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인권 의제나 현안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기도 하는 장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젊고 학력 높을수록 다문화에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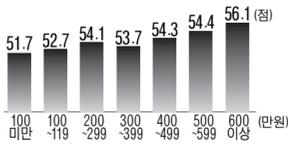
■ 연령대별 다문화수용성



■ 교육수준별 다문화수용성



■ 소득수준별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성, 4년 전보다 향상...청소년 최고·60대 최저

'외국인 이웃 싫다' 31.8%로 선진국 비해 월등히 높아

연령이 낮고,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다문화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인들의 경우 4년 전보다 다문화사회 수용성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별 다문화수용성은 청소년(중·고생)이 67.6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20대 57.50점, 30대 56.75점, 40대 54.42점, 50대 51.47점, 60대 이상 48.77점으로 젊은 연령층일수록 다문화에 수용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연구 의뢰해 (주)한국갤럽이 조사한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10일~11월10일 전국 19~74

세 성인 4000명과 청소년 364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성인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53.95점으로 지난 2012년(51.17점)에 비해 2.78점 높아졌고, 청소년(중·고생)은 67.63점으로 지난 2012년(60.12점)보다 향상됐다. 여가부는 지난 2012년 당시와 조사 척도의 차이가 있어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일부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았다.

주요 국제지표 항목 중 '일자리가 귀할 때 자국민 우선 고용에 찬성한다'라는 문항에 한국의 경우 60.4%가 '찬성한다'고 답했지만 스웨덴은 14.5%, 독일 41.5%, 미국 50.5%, 호주 51%에 그쳤다. 또 한국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이민자를 이웃으

로 삼고 싶지 않음' 정도가 31.8%로, 미국(13.7%), 독일(21.5%), 스웨덴(3.5%), 호주(10.6%)에 비해 높았다.

또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최종학력이 대학원인 경우 다문화수용성이 62.09%로 가장 높고, 이어 4년제 대학(56.38%), 전문대(55.49%), 고등학교(53.26), 중학교(47.83%) 순으로 집계됐다.

소득수준의 경우 월 소득 600만원 이상에서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만원 미만에서 51.72%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국민의 다문화교육 이수율과 활동 참여도 저조했다. 성인의 경우 다문화교육에 참여한 비율이 5.5%, 자원봉사 참여 4.2%, 동호회 참여 2.7%에 불과했다. 청소년은 최근 1년간 다문화 교육 참여했다는 응답이 25.7%였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동구, 복지대상자 점검

기초생활·장애연금 등

광주시 동구는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를 받는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201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 차상위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으로 모두 3305세대이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65종의 소득·재산 정보를 연계한 최근 공적자료 등을 반영함으로써 복지대상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대상자가 소득·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자료 제출시 공적자료 수정 후 결과를 적용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부적격자가 보호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서비스 행정 및 복지안정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우정 나누는 등골길

광주북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들은 '화이트 데이'를 맞아 지난 14일 오전 북구 우산중학교에서 경찰관, 교사, 학생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도야·포순이와 함께하는 등골길 우정사랑 나누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광주북부경찰서 제공)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대출 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